

농작업 시 농약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 수칙

김효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안전보건팀 063-238-4166

농약 중독은 실수나 고의로 인한 음독부터 급만성 중독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약 중독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품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농약을 사용할 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약을 희석할 때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농약을 희석하면서 농약에 노출되는 사례 >



농약이 든 병을 행구는 경우



밀봉된 가루 농약을 뜯는 경우

- 기존에 수행된 농약 노출 평가 연구에 따르면 농약을 살포할 때뿐만 아니라 희석할 때도 농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농약이 든 병을 행구다가 손에 농약이 묻거나, 가루로 된 농약을 물에 붓고 녹이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가루가 퍼지면서 코나 입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농약을 희석할 때는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업용 고무장갑을 끼고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마스크는 필터 기능이 분진마스크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꼭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 살포 시 농약이 묻은 작물과의 접촉을 최소화

< 농약 살포 시 꼭 지켜야 할 것 >



농약 살포 시 갖춰야 할 복장



농약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진 살포

- 농약을 희석할 때는 주로 호흡기와 피부가 농약에 노출되는 반면, 농약을 살포할 때는 작물의 잎에 묻은 농약이 다시 피부에 묻으면서 피부가 농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처럼 키가 작은 작물의 경우 농약이 묻은 잎과 최소한으로 접촉하기 위해 되도록 뒤로 걸으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약을 살포할 때는 방제복을 입고 마스크와 고무장갑, 장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방제복을 입기 어려울 때는 방수 재질로 된 앞치마를 입도록 합니다.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는 하반신보다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이 농약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때는 앞치마가 아니라 우의를 입고 우의에 달린 모자를 써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한 후에 지켜야 할 사항

- 앞에서 언급한 수칙을 전부 지키면서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약을 살포하고 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 살포 후 바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를 꼭 한다.



농약 살포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한번 입은 방제복은 반드시 빨려 다른 빨래와 섞지 않고 단독 세탁한다.



사용한 농약병은 지정된 폐기함에 넣고, 남은 농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농약 보관함에 넣는다.